

## 화협의 발자취와 진로



**박 은 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고문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여 늘름한 성인으로 성장한 것을 중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동안 애쓰신 역대 임원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난 27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국민총생산(GNP) 기준

으로 보면, 5.2조원(미화 134억달러)에서 484조원(1999년 현재 5,850억 달러)으로 미화기준으로는 약 44배 성장했으며, 1인당 GNPSMS 396달러에서 8,581달러로 약 22배, 보험시장의 규모(보험료 기준)는 778억원(5억달러)에서 56조원(509억 달러)으로 약 250배 성장했다. 경제면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고, 보험시장은 세계 30위 안팎에서 6위로 부상하여 G7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되었다.

화협의 미래상에 관한 비전을 그리기 위해서는 숲을 밖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뜻에서 리스크와 보험의 관계, 보험환경의 변화, 그리고 화협의 주요 업적과 당면 과제 등을 먼저 짚어보려고 한다.

### 1. 리스크와 보험의 본질

리스크(risk)의 어원은 헬라어의 krisis(영어로 crisis: 위기)라고 추리할 수 있다. 파생어인 critical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겁을 모르면 재난이 온다”고 갈파한 노자의 명언처럼, 평화에 도취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번영을 구가하면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천재(天災)가 닥쳐오고, 방심하면 화재나 교통사고 같은 인재(人災)를 당하게 된다.

인류의 역사는 재난의 연속이었으므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났을 때부터 리스크관리자(risk manager)일 수밖에 없지만, 리스크관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50년대니까 아직도 불모지에 가까울 정도로 어린 학문이다.

우리가 최근에 겪은 IMF사태가 하나의 보기일 것이다. 아무도 예측하거나 예방하지 못했고, 그 강도도 지각변동에 견줄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100조원대의 금융시장붕괴는 보험으로도 국가 재정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어 모든 국민이 피해를 나누어야만 했다.

국가의 위기관리라는 시각에서 보면 보험의 담보력은 너무나 영세하다. 리스크관리의 3대 테크를 ①예측(forecasting), ②제어(controlling), ③재무(financing)라고 요약할 수 있다.

좀 더 세분하면, 예측에는 ①빈도(frequency) 예측, ②강도(severity) 예측, ③손해(loss) 예측, 제어에는 ④회피(avoidance), ⑤예방(prevention), ⑥손해방지(loss reduction), 재무에는 ⑦보유(retention), ⑧전가(transfer), ⑨분담(sharing) 등 모두 9가지이다.

기업이나 가계라는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은 전가나 분담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 보험회사가 손해의 전액을 보상하면 전가에 해당하지만, 리스크의 일부를 면책하거나 보험금액까지만 부담하거나 자기부담액이 있으면 분담이 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를 대행하는 곳이 아니며, 경제적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3대 테크 중 재무테크에 부분적으로 관여할 뿐이다.

미래산업으로서의 보험의 과제는 예측과 제어를 보다 과학화하여 총체적인 리스크관리에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보험의 영역과 담보력을 확충하여 면책을 최소화하고 보상한도를 무한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 보험환경의 변화

근대보험의 전신인 모험대차시대의 보험주체는 금융기관(대금업자)이었으며, 보상한 손해는 회수불능의 채권(대출금)이었으므로 리스크관리의 시각에서 보면 신용리스크의 관리기법이었다. 13세기 이탈리아 상인들이 시작한 근대보험은 해상보험이었으며, 15세기 독일의 공제조합이 개시한 화재보험까지는 재산리스크의 전가수단이었다. 소득리스크의 관리수단으로 16세기 영국에서 개발한 것이 생명보험이다. 비용리스크에 해당하는 상해, 질병보험이나, 책임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이나 재보험은 모두 19세기의 산물이다. 손해를 기준으로 본 4대 리스크가 모두 보험의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6세기가 걸린 셈인데, 19세기말까지의 주력상품은 역시 재산보험이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보험시장에도 지각변동

이 일어난다. 자동차의 보급, 산업재해의 대형화, 생산물에 의한 피해, 환경오염 등에 따른 책임보험의 비중이 재산보험을 능가하게 되었고, 소득과 의료비의 상승으로 생명보험이 손해보험을 앞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의 다양화로 종합보험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60년대까지는 재산보험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70년대 이후 책임·소득·비용보험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여 종합보험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 시장에서의 화재보험의 비중은 60년대의 80% 수준에서 2000년도에는 2% 내외로 떨어지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건축에서의 조기경보, 내화구조, 자동소화 등의 발달과 소방시설의 첨단화(고기사다리, 헬리콥터 등)로 화재리스크가 감소하여 시가지의 3/4을 불태워버린 런던대화(1666년)나 맨해튼의 월가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뉴욕대화(1835년)와 같은 대형사고는 없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연각 호텔화재(1971년)나 구미 윤성방적화재(1974년)와 같은 참사는 그 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화재리스크가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화재보험의 수요가 줄었다기 보다는 다른 리스크의 엄청난 증가로 시장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화협 27년의 발자취

화재리스크는 기업이나 가계가 관리해야 하는 개별 리스크지만, 그 강도가 사회 전반에 미치면 사회리스크가 된다. 사회리스크는 국가가 개입하여 법률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협은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다. 1972년 서울시민회관의 화재현장에서 참사를 목격한 박대통령이 현장에서 화보험의 제정을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법의 3가지 목적은 ①화재로 인한 인명·재산의 손실예방, ②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보상,

③국민생활의 안정 등이다.

또한 이 법에 의하여 손해보  
험회사가 설립한 화협의 4대 법  
정업무는 ①안전점검, ②소화설  
비 할인등급 결정, ③방재에 관  
한 조사 연구 계몽, ④화재예  
방에 관한 건의 등이며, 기타 업  
무는 재경부장관의 인가사항이  
므로 법의 취지와 맞는다면 제  
한이 없는 셈이다.

지난 27년의 주요 업적을 4가  
지 성과를 중심으로 재평가해보겠다.

가. 국가의 총체적 리스크관리에 하나의 초석이  
되었다

(1) 특수건물의 안전점검과 보험인수는 방재시  
설의 개선을 통한 화재의 예방과 신속한 재해복  
구를 위한 보상체제를 확립하였고, 그 결과 대형  
사고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감소되었다.

(2) 국가 보안시설의 점검, 원자력발전소의 안  
전성 평가, 인천공항 등 공공시설의 방재계획 자  
문, 국가방재대책 건의 등은 국가 RM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3) 소화기기의 기증과 소방안전봉사상의 제정  
등은 방재와 보험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  
었을 것이다.

나. 기업의 안정과 수지 개선에도 보탬이 되었다

(1) 특수건물의 소유기업이나 기관은 안전점검  
과 소화설비의 할인 등을 통하여 방재기법의 개  
선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이며, 그 결과 손  
해가 감소되고 보험료의 인하 효과도 있었으므로  
수지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2) 방재시험연구원의 품질인증제(FILK)와  
자금 대여 등은 방재산업의 공신력 향상과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3) 방재종사자의 교육, 연구용역과 자문 등은  
기업의 방재기술 향상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전경

다.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술 향상과 경영개  
선에 기여했다

(1) 기술인력의 풀화로 사실상 손보 11개사의  
기술부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언더라이팅 기술  
이 향상되었으며, 언더라이팅 관련정보의 DB화  
와 인터넷을 통한 공개는 보험료의 과학적인 산  
정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2) 특수건물의 손해율(30% 내외)이 기타 물  
건(약 60%)보다 낮은 것을 보아도 화협이 대행  
한 언더라이팅은 성공한 셈이며, 그만큼 보험회사  
의 수지개선에도 기여한 것이다.

라. 국민생활의 안정에도 기여했다

(1) 「방재와 보험」과 같은 간행물, 교육, 표어,  
포스터, 영화, 비디오 등을 통한 방재지식의 대중  
화는 국민의 리스크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도  
움이 되었을 것이다.

(2) 이와 같은 사업의 전개로 대형화재사고는  
크게 줄었으며,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신속한 보  
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만큼 국민생활의 안  
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앞으로의 과제

(1) 보험환경의 변화는 다양해진 리스크의 종  
합관리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장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화재리스크 중심의 기관으로는 존립의의가  
퇴색하고 있다는 뜻이다.

(2) 보상한도를 현실화하거나 무한화해야 할

것이다. 대인배상의 경우 3~6천만원은 국민정서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항공사고의 경우 3억원이 관행으로 인식된 지가 오래다.

(3) 자립도를 향상시켜 독립채산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신해야 한다.

#### 4. 화협의 진로에 관한 견해

##### 가. 기본방향

(1) 고효율·저비용의 내실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독립채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손보 11개사의 시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출연에 대한 은혜를 오히려 갚아야 한다.

(2) 화보험의 입법취지에 따라 공익법인으로서의 위상은 지켜야 한다.

(3)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주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완해야 한다.

##### 나.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시안

(1) “방재”와 “보험”이라는 ‘화보험’의 입법취지=기본틀(패러다임)을 유지하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법인’으로 변신해야 한다.

지금까지 밝혔듯이 보험환경은 지난 27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했다. 화재의 빈도나 강도는 방재기술의 발전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그동안 다른 리스크와 새로운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고 많아져 화재의 비중은 19세기의 최고 80%에서 2%로 줄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손보의 80%에서 2%로 줄었다. 빈도나 강도에서 비중이 높아진 것이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지하철이나 교량(성수대교)과 같은 공공시설의 붕괴, 가스폭발, 항공사고, 핵발전소 등이다.

논리는 약간 비약하지만, 우리나라가 1997년에 겪은 IMF 위기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신용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보증보험이 파산에 직면하고 금융기관의 손실총액은 100조원대에 이르렀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나라”라는 말을 남긴 셰익스피어의 명언은 보험에 적용하면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보험이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리스크관리에서는 보험을 최고의 RM기법이라고 자찬하지만 보험은 ‘약한 자고 화재리스크는 2% 내외로 줄어들었다.

(2)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읊은 것처럼 “네 이름을 버려라!” 이름을 바꿔야 산다는 뜻이다. 그래서 ‘한국리스크관리협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3) 손보 11개사의 출연을 기본자산으로 하되 미국의 RIMS(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ciety)처럼 대형리스크의 관리기업들을 회원으로 영입하여 우리나라의 ‘RM Center’로 변신해야 한다.

(4)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에 대한 10가지 방법을 제시하겠다.

- ① 특수건물의 안전점검과 보험인수를 대행하는 수수료. 이익의 20%만 받으면 된다.
- ② 원자력보험 풀의 위탁 경영
- ③ 대형리스크의 언더라이팅 서베이를 하면 수입수료를 받아야 한다.
- ④ 대형사고의 손해사정. 화협은 손해사정인의 자격이 있고 제3자이기 때문에 공신력도 있다.
- ⑤ 방재기기의 검정수수료 (FILK)
- ⑥ 가입기업의 RM컨설팅 수수료
- ⑦ RM정보의 인터넷 서비스 수수료
- ⑧ RM관련 출판물의 판매수입
- ⑨ RM관련 홍보·교육의 유상화
- ⑩ RM세미나(산업별)의 정례화(회비제) 등이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나는 화협의 27년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는 성장했으니까 성숙의 단계로 준비하기 바란다.